

대령양주보

제二号

10/30,
1959

서기
一九五九年十月三十日
단기
四三九三년十月三十일

미국의 철·강 동맹과 업 제三공소원 「포쓰버그」 합중국 법정의 북업명령을 치지 단. 상고에 6일간의 기한을 놓아

(화성군=+7일발. 예이회) 「회라델파야」 제3공소원의 3명의 판사는 317일 전에 「포쓰버그」 합중국 법정이 내린 철·강 스톤라이크 중의 죄수 5명에 대해서 81일간 북업을 명령한 판결을 기지하는 판결을 내리고 이 판결에 대해서 노동조합측이 미국대심원에 상고하는 경우 상고준비기간으로서 6일간의 기한을 허락하였다. 따라서 노동조합측은 이 6일간 중 판결을 계속하여도 좋게 되었다.

이 판결에 대해서 노동조합측 변호사는 6일간의 유예기한이 경과되기 전에 상고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는데 「윌리암·라자스」 검사총장은 상고준비기한을 치일이나 줄 필요가 없으니까 자기는 10월 31일 오전 11시까지로 대심원이 이 기한을 단축하도록 수속을 취하겠라고 발표하였다.

「라자스」 검사총장의 조치는 「태흐트·허드레이」 법에 의해 조언의 화장을 속히 복업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 것이다

상고기한을 단축 시키려는
정부측 요구를 대심원이 거부

HAWN.
NEWSPAPER
STACKS

(화성군=+7일발. 예이회) 제3공소원의 철·강 노동조합 죄수

전 대	발 주 사
행 소	필 장
화 금	김 창 원
대	최 백 열
화 금	북 칭 거 리 九 三 一
대	동 지 회 관 내
화 금	八 五 八 九

(제一면에 계속)

의 직장복지를 명령하는 합중국 지방재판소의 법정명령을
지지하는 판결을 내리는 한편 노동조합측에 합중국 대심원에
상고하는 준비기한으로 七月가을 준것에 대해 정부측은 상고의
촉진을 농노조합에 저력하도록 二十八일 강력히 소망하였는데.
대심원은 아무 말없이 이 소망을 거부하였다.

이것으로서 노동조합측은 월요일까지 상고하면된다.

또 철강슬라ϊ크는 백七星째를 마지하였다.

또 지난 일요일 아래 중단되어 있던 노동자측과 고용주측의 정식
회고회의가 二十九일 오후 재개되었다.

도·서·수·뇌·회·답·으

내·년·二·三·월·경?

서·축·수·뇌·회·답·으·二·월·중·순

(와싱턴二十九일 발. 콘도) 아침전 하위 대통령은 二十八일의 정례
기자회견에서 서축국은 불란서의 강력한 요구로 二二월 중순에
선축수뇌회담을 개최하리라고 시사하였다.

아대통령은 그 개인으로서는 더 빨리 서축수뇌회담을 열기를
생각으로 있었는데 '드콤' 대통령으로부터의 서한에 의하면 동서
수뇌회담의 조기 개최에 대해서 불란서 정부로서는 여러 가지 이유로
이를 잠시 연기하였으면 좋겠다고 전해왔다. 그 후 동대통령으로
부터 다시 서한으로 서축수뇌회담을 二二월 중순에 여는 데
동의한다는 유통이 있었다. 라고 말하고 동서수뇌회담을 연내
에 여는 것은 시기상 조라는 '드콤' 대통령의 견해를 미·영·양국이
허는 수밖에 수락한 것을 명백히 하였다.

이로 인해서

와싱턴 외교부에서는 동서수뇌회담은 빨리야

내년 二월 하순 내지 三월 중에 열리지 않는가 관측하고 있다.

그 이유로서는 아대통령은 一월 중은 항의의 미의회에의 일반교세
예산과 세 경제보고 기타 고서류의 제출로 본주 할것이며
와싱頓을 떠날 수 없는 절을 지적하고 있다.



국련전(가맹국)

동서군축결의안 제출국

(뉴욕 = 29일 밤, 국련) 국련의 동서군축소결의안에는 가맹국 8+개국 전부가 결의안 제출국으로 참가하였다. 전가맹국이 일치하여 결의안 제출국으로 된 것은 역사까지 없던 일이다.

이번에는 역사까지 결의안 제출국에 가담한 적이 없는 이스라엘과 아랍 제국도 참가하였으며, 소련과 중국이 같은 결의안의 제출자가 된 것 등 금시초문의 일이다.

이번의 군축결의안은 일국의 안에 의한 것이 아니고 모든 전선을 내년 1월 제네바에서 열리는 동서 10개국 위원회에서 협의하기로 되어 있다.

미·소의 문화교류 시각

소련 문화상의 보고

(동경 = 29일 밤, 공동) 30일의 타스 통신에 의하면, 미하يل로프 소련문화상은 동일의 최고회의에서 소련의 대외문화 활동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보고하였다.

— 소련은 현재 70개국 이상과 문화적 관계를 맺고 있다. 국제협정 또는 개별 계약의 형식으로 금년 말로 7천 명 이상의 문화인이 해외에 나갔으며, 「バレーシ아 국장·バレードン レ닝크라우·오페라·バレイ안·」 모스크바 예술단 등이 해외에서 공연하였다.

— 미·소문화관계도 재개되었다. 뉴욕교향악단을 위시하여 많은 연주가 문화대표·영화·연극계 대표가 소련을 방문하였다. 가까이 제 1회 미·소 영화의 밤이 양국에서 개최된다. 또 미국미술전이 모스크바에서 열리고 소련의 표향작은 유명한 가수들이 가까이 미국을 방문한다.



소련, 달의 들판 사진 찰리에 성공 달의 산맥, 항만에 명명 미국의 표정은 복잡

(와생蹲 25일 밤. 공동) 소련이 25일 오후 한 달의
리먼의 사진과 소련 과학자에 의한 산맥. 바다. 항만 등의 이름을
지은 것에 대해서 미국 정부의 공식 견해는 아직 명백히 되지 않았다.
는데 과학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서 다음의 3점을 주목하고 있다.

— 소련의 찰영장치의 우수성 —

소련이 달의 리먼의 사진 찰영에 성공한 것은 흑성간 소련이
발사 이상의 타격을 미국 과학계에 주었다. 아직까지 미국 과학진은
「스테이션」에 찰영장치가 있는지 없는지 공연히 의심하고 있었던
또 「스테이션」이 달의 리먼을 깨끗이 떠려저서 도로았기 때문에
찰영장치가 있었나 하드라도 실제에 있어서는 실패한 것인가
의심하고 있었다. 그러나 「타쓰」(통신)의 발표에 의하면, 흑성간
스테이션은 미국의 예산을 어기고 「휠리엄」에 의해 사진을 찍을 수
카메라의 장치를 가지고 있었으며 떠려진 지점으로부터 45분간에 걸쳐서 달로 부터 칸네지 맨 키로
멀리 많은 사진을 찍고 「휠리엄」의 현상. 정착 등 모든 것을 자동적으로 할 수가 있었다.
이로 알 수 있다. 미국의 과학진은 대단히 놀라움을 표시하였다.
미국은 7월 하순에 애트라스. 에이풀. 라켓드를 달 주위로
발사하는데, 이것에 실质 찰영장치는 일종의 레이다에 의해서
달의 상태를 잡아. 이것을 지상으로 전파에 의해 송신 시켜
사진을 만드는 정도로 소련의 것에 비하면 훨씬 뒤떨어진 것이라
고 보고 있다.

— 달의 리먼에 창영 —

여태까지 몇 세기 동안 미·영·독일 등 선진 서양 과학국의 손
으로 발견되자마자 명명된 (이름을 짓는 것) 달의 표명과는
달과 금번의 달의 리먼의 명명은 7월 4일의 후성간 「스테이션」



(제4번 예계수)

발사 아래 3주 일정에 역사에 전예가 있는 솔련一국의 힘으로
7개의 지점에 이름을 지어 버렸다. 미국의 과학진으로서는
다만 앉어서 구경만 하는 섬인데 내실으로는 실망감으로 가득
차고 있다. 타쓰, 토신에 의하면 7개의 지점 중 「모스코바」의
이름이 2개 「소비에트」가 1. 솔련과학자의 이름을 딴것이 2.
소련의 태양 「후성」의 이름이 1. 각각 명명되었는데 단 하나의
외국인의 이름이나왔다 「조리오 쿠리모」 「쿠리」가 불란서
공산당 당부였던가 때문에 부친것으로 이것도 서방 과학계에
대한 존경의 표시는 절대로 아 달라고 보고 있다.

— 솔련의 새로운 외교정책 —

후성은 스테이션의 사진촬영 그 자체는 외교정책은 물론이거나와
군사적 영향도 차이없다. 하나의 천문학 업적이라고 여정부 측에서는
말하고 있으나, 21세기 최대의 과학적 성과라고 볼수 있는 금번의
달의 탐색의 찰영은 아무에게나 이해할 수 있는 것으로 솔련의
과학의 우수성을 전세계에 표시한 것이다. 이것으로 솔련의
기초과학, 군사력 대해서는 경제력과 공업생산력 등의
높은 수준을 세계에 인상주는 큰 역할을 하게된다. 뉴욕
타임스에 의하면 서독의 「아데나우어」 두상마저 이번의 후성의
스테이션 성과의 결과 미국의 힘에 대한 신뢰의 감을
잃지 않았다고 전하여지고 있다. 한편 후성은 스테이션을 올렸
는지 증거를 볼때까지는 신용받아야 한다고 미국번에 말하고 있던
트로트, 브순 양씨는 달의 이면의 사진촬영이라는 압도적
반격을 받아 어쩔 줄 모르고 있다.

중공·인도 영도 침범 “전쟁은 아들이 어난다” 네루 수상답

(인도 멀트 = 4일 빙에 이되) 인도 「네루」 수상은 오늘 인도
북부 국경에서의 중공군 침범에 대해서 거청이 생겼다고 발표
하고 인민에 대해서는 강정에 흘지 말고 냉정히 하도록 경고
하였다.



(제5면에 계속)

네루 수상은 '북경사정은 걱정하게 되는데 이 문제로 인도·중공 간에 전쟁이 일어난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말하였다. '네루' 수상은 '뉴데리'로부터 4·15일 떠나진 다음에 와서 신문 기자와 질문에 대답하고 있다. '뉴데리'의 영국인 소유의 신문은 9월 1일의 사건에서 인도 정부는 중공과 외교 관계를 단절하게 될 것이라고 보도하고 있다.

중공·인도 관계 침악화

(뉴데리 9월 1일발 공동) 인도의 무선은 9월 1일 「라다그, 남부 국경에서 중공·인도간에 또 무력 충돌 사건이 발생하였다고 발표하였다. 「원밀의 「론류」 사건 아래 무력 충돌 사건은 이것으로서 두 번째 인데 이번에는 인도족의 사상자가 많기 때문에 사건에 주는 영향이 극히 심각하게 되어 점차 심어가고 있던 인도 국내의 반중국 감정이 새로 타기 시작하게 되는 모양이다.

혹시 조흔 노련 수상의 북경방문 아래 중공·인도 쌍방간에 국경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할려는 의향이 보였는데 이것이

중공·인도에 항의

(동경 9월 1일발 공동) 9월 1일의 신화사 북경전은 9월 1일 「중공·인도·파주 대사관」 인도대사에 각서를 수교. 9월 1일 양일 인도가 중공·인도 국경을 침범한 사건에 대해 엄중히 항의하는 동시에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하였다고 다음과 같이 사건의 경과를 보고하고 있다.

— 3월. 인도령 티벳·서부인의 「공간」 남방의 중국 경로에 침입. 중국 경비대원이 즉시 철퇴를 요구하였는데 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를 무장해 하고 구류하였다.

— 4월 1일. 인도령 티벳·서부인의 동일지점으로부터 침입하여 중국 경비대를 포위하고 그 헤아 걸쳐 사격하였다. 중공군도 자위를 위해 반격으로 티벳·서부인 사격하여 상당이 사상자를 내었다.

인도군은 포로가 생긴 후 철퇴하였다.

한국학과의 새 시대를 위한 글쓰기

한국학과 새 시대를 위한 글쓰기는 한국학과의 전통과 현대를 연결하는 학제적이고 창의적인 글쓰기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학생들이 자신의 연구 주제와 관심 분야에 맞는 글쓰기 기법을 익힐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특히 글쓰기와 함께 한글서체와 디자인, 사진 등 미디어 기술을 활용한 글쓰기 프로젝트를 포함하여 다양한 활동을 통해 학생들의 창의력을 키울 것입니다.

목차

본문은 학과 새 시대를 위한 글쓰기 프로그램에 대한 소개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학생들이 자신의 연구 주제와 관심 분야에 맞는 글쓰기 기법을 익힐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특히 글쓰기와 함께 한글서체와 디자인, 사진 등 미디어 기술을 활용한 글쓰기 프로젝트를 포함하여 다양한 활동을 통해 학생들의 창의력을 키울 것입니다.

한국학과 새 시대를 위한 글쓰기 프로그램 소개

한국학과 새 시대를 위한 글쓰기는 학생들이 자신의 연구 주제와 관심 분야에 맞는 글쓰기 기법을 익힐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특히 글쓰기와 함께 한글서체와 디자인, 사진 등 미디어 기술을 활용한 글쓰기 프로젝트를 포함하여 다양한 활동을 통해 학생들의 창의력을 키울 것입니다.

한국학과 새 시대를 위한 글쓰기 프로그램 소개

한국학과 새 시대를 위한 글쓰기는 학생들이 자신의 연구 주제와 관심 분야에 맞는 글쓰기 기법을 익힐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특히 글쓰기와 함께 한글서체와 디자인, 사진 등 미디어 기술을 활용한 글쓰기 프로젝트를 포함하여 다양한 활동을 통해 학생들의 창의력을 키울 것입니다.

한국학과 새 시대를 위한 글쓰기 프로그램 소개

한국학과 새 시대를 위한 글쓰기는 학생들이 자신의 연구 주제와 관심 분야에 맞는 글쓰기 기법을 익힐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특히 글쓰기와 함께 한글서체와 디자인, 사진 등 미디어 기술을 활용한 글쓰기 프로젝트를 포함하여 다양한 활동을 통해 학생들의 창의력을 키울 것입니다.

한국학과 새 시대를 위한 글쓰기는 학생들이 자신의 연구 주제와 관심 분야에 맞는 글쓰기 기법을 익힐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특히 글쓰기와 함께 한글서체와 디자인, 사진 등 미디어 기술을 활용한 글쓰기 프로젝트를 포함하여 다양한 활동을 통해 학생들의 창의력을 키울 것입니다.



원주 희곡

ପାତ୍ରକାଳୀନ ମହାଦେଶୀର୍ଷୀ ପାତ୍ରକାଳୀନ ମହାଦେଶୀର୍ଷୀ
ପାତ୍ରକାଳୀନ ମହାଦେଶୀର୍ଷୀ ପାତ୍ରକାଳୀନ ମହାଦେଶୀର୍ଷୀ

ପ୍ରକାଶ ପାତ୍ର ପାଇଁ ଏହାର ନିମ୍ନଲିଖିତ ବିଷୟରେ

한국민족수학 구조론

卷之三

韓書
卷之三

한국학
문화총조사
총괄
제3권

거이아루아
최명호
＋
李元

卷之三

१० नामांकन से विभिन्न विभिन्न विभिन्न विभिन्न विभिन्न

1944年1月1日
新嘉坡
劉曉雲

त्रिविक्रमी त्रिविक्रमी त्रिविक्रमी